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1)

- 農學分野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tation Analysis of *Limwonsibyukji*

노 기 춘(Ki-Chun Roh)*

〈 목 차 〉

- | | |
|---------------------------|---------------------------|
| I. 緒 論 | Ⅲ. 林園十六志의 編成體制 |
| II. 『林園十六志』의 編纂年代와 書誌的 特徵 | Ⅳ. 農學分野 引用文獻과 引用書目과의 比較分析 |
| 1. 編纂年代 | Ⅴ. 引用文獻의 引用回數 分析 |
| 2. 書誌的 特徵 | Ⅵ. 結 論 |

초 록

이 연구는 林園十六志 가운데 農學分野에 속하는 6개 志의 引用文獻을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引用文獻의 표기상 誤謬로 확인된 문헌은 20종이며, 略書名 또는 異書名은 53종으로 확인되었다. 書名의 誤記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정리하여 본 결과, 農學分野의 引用文獻은 총 357종, 인용회수는 총 5349회로 밝혀졌다. 그리고 林園十六志의 農學分野 편찬에 인용회수가 100회 이상인 핵심문헌은 羣芳譜(667회), 農書(王禎)(299회), 農政全書(296회), 本草綱目(268회), 齊民要術(264회), 增補山林經濟(251회), 蘭湖漁牧志(250회), 杏蒲志(213회), 和漢三才圖會(137회), 亳州牧丹史(107회) 등 10종으로 밝혀졌고, 農學分野인 6개 志는 원문(1차 자료)의 직접인용을 통한 편찬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徐有渠, 林園經濟志, 林園十六志, 灌畦志, 晚學志, 本利志, 藝苑志, 展功志, 佃漁志

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cited literatures of six chapters of *Limwonsibyukji*, which mainly deal with agricultur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among citations twenty kinds of literature have orthographic errors in title and fifty three kinds of literature are abbreviated titles. Totals of cited literature which concerned with agriculture in *Limwonsibyukji* are 357 kinds and citation frequency is 5349 times. Core literatures which citation frequency over 100 times are *Kunbangbo*, *Nongseo*, *Nongjeongjeonseo*, *Bonchogangmok*, *Jeminyosul*, *Jengbosanlimkyongje*, *Nanhoemokji*, *Haeongpoji*, *Hwahansamjaedohae*, *Bakjumokdansa* and six chapters of *Limwonsibyukji* concerning agriculture was mainly compiled through direct citation from raw materials.

Key Words: Seo Yoo Ku, *Limwonkyongjeji*, *Limwonsibyukji*, *KwanhyuJi*, *ManhakJi*, *Bonliji*, *Yaewonji*, *Jeonkongji*, *Jeoneoji*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rohhide@hanmail.net)

• 접수일: 2006년 2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緒論

朝鮮은 建國 이래 집권의 강화와 재정의 확보를 위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건국 초기에는 중국의 농법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농법을 수용한 農事直說, 衿陽雜錄, 四時纂要抄 등의 농서를 편찬 간행하였고, 兩亂 이후에는 피폐해진 농업 재건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閑情錄, 穡經, 農家集成 등을 편찬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초반에 들어 조선 전기의 농학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농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두루 갖춘 백과전서 성격의 綜合農書인 山林經濟가 洪萬選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國內 農業事情의 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농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798년 11월(正祖 22) 農政策인 ‘勸農政求農書繪音’이 반포되면서 北學議, 課農小抄, 海東農書 등의 새로운 農書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林園十六志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楓石 徐有榘(1764~1845)가 1827년경 祖父 徐命膺과 父 徐浩修의 家學인 農學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농서의 학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農事直說, 農家集成,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를 바탕으로 하고, 正祖 22년 求農書繪音에 따른 應旨進農書와 실학파의 경제사상을 계승하며, 아울러 중국의 농학까지도 수용하여 백과전서의 성격을 갖춘 종합 농서를 완성하였다. 이것은 곧 18세기 말의 농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조정의 農書 편찬의 完成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과거의 農書를 재정리하고 조선시대 농학의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에서 朝鮮朝 農書의 完決本이라 할 수 있다. 113권의 巨帙인 本書는 刊印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만 전해오고 있는데, 특히 각 인용부분에는 인용내용의 典據를 모두 밝혀 당시에 유통되고 있었던 문헌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그러나 林園十六志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巨帙인 까닭에 본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建築學¹⁾, 染色²⁾, 食品營養³⁾, 繪畫史⁴⁾ 등 대부분 일부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고, 金榮鎮⁵⁾과 李春

- 1) 金用煥·洪錫珠, “林園經濟志의 東·西四宅論에 관한 研究,” 博物館誌, 5호(忠淸專門大學 博物館, 1996.10), pp.5-20; 朴東必, 林園經濟志의 生氣 觀點에서 본 良洞마을 주거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市立大學校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2); 朴明德, “『林園十六地』의 『瞻用志』中 屋三分法에 대한 小論,” 建築, 제36권, 제4호(대한건축학회, 1992, 8), pp.84-89.
- 2) 이양섭·최순복, “홍색소에 의한 염색연구,” 생활문화예술논집, 제16집(建國大學校附設 生活文化研究所, 1993), pp.131-143; 張惠鴻, 傳統 褐色 色名과 그 堅牢性 研究(석사학위논문, 建國大學校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1992); 崔純福, 植物에 依한 紅色系 染色 연구(석사학위논문, 建國大學校 大學院 산업디자인학과, 1992).
- 3) 김규영·이춘자, “『임원십육지』의 떡류(餅餌類) 조리가공에 관한 문헌 비교 연구,”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12, No.6(2002), pp.81-92; 김규영·이춘자·박혜원, “『임원십육지』의 곡물 조리가공(밥·죽)에 관한 문헌 비교 연구(I),”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8, No.4(1998), pp.360-378; 김현숙·이효지, “『임원십육지』 정조지의 조리학적 고찰(I),” 韓國生活科學研究, 第24號(2004), pp.59-82; 백숙은·최영진,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수록된 어패류의 향약성(鄉藥性)에 관한 연구,”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14 No.3(2004), pp.187-195; 신민자·최영진, “임원십육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음료의 향약성 효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8, No.2(1998), pp.502-516; 崔榮辰,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수록된 魚貝類의 일반적 特性과 금기식품에 관한 연구,” 關大論文集, 제29집(關東大學校 自然科學 藝體能學 編, 2001), pp.249-264.
- 4) 박은순, “서유구와 서화감상학과 『林園經濟志』,” 韓國學論集, 34輯(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00), pp.209-239;

寧⁶⁾도 전반적인 農學史의 관점에서 林園十六志를 간략히 고찰하였을 뿐이며, 洪九杓⁷⁾도 徐氏三代(徐命膺, 徐浩修, 徐有槩)의 農學思想 및 編纂農書 중심으로 논술했을 뿐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자들 중에서 林園十六志에 대하여 종합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자는 李盛雨로 1981년에 저술한 韓國食經大全⁸⁾에서 林園十六志의 書誌事項과 徐有槩의 家系 및 編纂年代問題, 編纂의 時代的 背景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16志 전체를 다루지 않고, 本立志, 灌畦志, 晚學志, 佃漁志, 鼎俎志, 瞻用志, 蓀養志, 仁濟志, 怡雲志 등 9개 志를 대상으로 하였고, 9개 志도 단지 食品營養에 관련된 目次와 인용문헌의 빈도수만 기술하고 있을 뿐, 서지학적 측면에서 林園十六志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논문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적 측면에서 林園十六志 전반에 걸쳐 인용된 문헌, 즉 引用文獻을 살펴보고, 이들 引用文獻의 表記上의 誤謬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卷首에 수록된 引用書目 또는 相關자료를 참고하여 서명을 바로 잡아 각 志의 引用文獻을 정확히 밝혀보며, 引用文獻의 인용회수를 분석하여 林園十六志의 편찬에 핵심이 되는 문헌을 밝혀보고자 한다. 다만, 林園十六志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16志를 農學分野(農業, 園藝, 畜産), 醫學分野, 其他 分野로 나누어, 이번 연구에서는 農學分野에 해당하는 本立志, 灌畦志, 藝苑志, 晚學志, 展功志, 佃漁志 등의 6개 志로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林園十六志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자가 밝혀 놓았던 조선시대의 농학사, 徐有槩의 家系⁹⁾ 등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용문헌의 설명 등은 논의를 피하고자 한다.

李成美, “『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서유구의 中國繪畫 및 畫論에 대한 關心,” 美術史學研究, 193호(한국미술사학회, 1992), pp.33-57.

5) 金榮鎮, 農林水産古文獻備要(서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pp.65-74.

6) 李春寧, 韓國農學史(서울: 民音社, 1989), pp.155-161.

7) 洪九杓, 朝鮮朝 後期 農學思想과 農書編纂에 關한 研究(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90.8).

8) 李盛雨, 韓國食經大全(서울: 鄉文社, 1981), pp.85-106.

9) 이와 관련된 논문과 相關자료는 다음과 같다.

相關자료: 金益桓, 萬姓大同譜(서울: 新韓書林, 1981); 大邱徐氏都威公派譜編纂委員會編, 大邱徐氏都威公派譜(1991); 徐眞錫 編, 大邱(達成)徐氏世譜(서울: 大邱徐氏世譜編纂委, 2003); 韓國姓譜編纂委員會編, 韓國人の 姓譜(서울: 三安文化社, 1986)

相關논문: 유봉학, “徐有槩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奎章閣, 第九輯(1985), pp.24-29; 李盛雨, 韓國食經大全(서울: 鄉文社, 1981), pp.89; 洪九杓, 朝鮮朝 後期 農學思想과 農書編纂에 關한 研究(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90.8), pp.36-64 등등 다수의 논문에서 徐有槩의 생애를 다루고 있음.

II. 『林園十六志』의 編纂年代와 書誌的 特徵

1. 編纂年代

林園十六志는 언제 편찬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여러 학자들이 林園十六志의 편찬년대를 추정하였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크게 1827년, 1835년, 1842-1845년 3개의 편찬설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827년 편찬설은 林園十六志를 편찬할 때 校訂을 본 徐有渠의 아들 宇輔가卒한 1827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1827년 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李盛雨로, 林園經濟志 各卷의 虛頭에 한결같이 “洙上 徐有渠準平 纂 男 宇輔 校”라고 적혀 있고, 日本 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 『林園經濟志』 第1冊의 本利志引 옆면(앞 表紙의 뒷면)에 붙여놓은 韓紙에는 “나는 수십년 각고 끝에 단연의 공으로 임원십육지 백여권의 저술을 이제 겨우 끝내었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나는 無子無妻이다. 이 책의 소장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어쩌다가 이것을 다시 펼쳐보니 눈물이 흘러 그칠 줄 모르네.”¹⁰⁾와 같이 『金華耕讀記』 卷3 耕讀記에 쓰여있는 徐有渠의 隨筆에 근거하여 宇輔가 父 徐有渠에 앞서 純祖 27年(1827)년에 卒하였음을 제시하면서 그 편찬년대를 1827년 경으로 추정하였다.¹¹⁾

둘째, 1835년 편찬설은 千寬宇와 李春寧이 주장한 것으로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日本 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 『林園經濟志』 鼎俎志 咬茹之類의 煮藷葉方에 徐有渠 자신이 1834년 저술한 『種藷譜』가 인용¹²⁾되어 있기 때문에 1년 후인 1835년을 그 편찬년대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1842-1845년 편찬설은 金榮鎮이 주장한 것으로 “만년에는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토대로 3대에 걸친 그의 家學으로 林園經濟志(113권 52책)을 저술하였다”¹³⁾와 같이 徐有渠가 晩年(1845년 卒)에 林園經濟志를 편찬하였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日本 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 『林園經濟志』 鼎俎志 咬茹之類의 煮藷葉方에 1834년 편찬된 『種藷譜』가 인용되고 있어 모순이 되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가 『種藷譜』를 저술한 후 내용을 추가하였거나, 또는 후손에 의하여 가필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林園十六志의 편찬년대는 林園十六志의 편찬작업에 참여한 宇輔가 歿한 1827년 이후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0) 余積骨數十年丹鉛之工著林園十六志百餘卷近?卒業但恨無子無妻可以付托典守偶爾覽此不覺愴悌久之.

11) 李盛雨, 韓國食經大全(서울 : 鄉文社, 1981), pp.91-92.

12) 李盛雨, 韓國食經大全(서울 : 鄉文社, 1981), p.93.

13) 金榮鎮, 農林水產古文獻備要(서울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p.65.

2. 書誌的 特徵

林園經濟志는 筆寫本으로 전존되고 있으며, 현재 奎章閣(52冊), 日本 大阪府立圖書館(31冊), 高麗大學校(49冊), 日本 東洋文庫(1冊), 美國 캘리포니아대학 淺見文庫(1冊), 日本 今西文庫(1冊), 국립중앙도서관(1冊), 서울대학교 가람문고(1冊) 등에 소장되어 있다.¹⁴⁾

奎章閣本, 日本 大阪府立圖書館本, 高麗大學校本은 完帙本이 아니며, 高麗大學校本은 日本 大阪府立圖書館本の 轉寫本이다. 그러므로 日本 大阪府立圖書館本과 奎章閣藏本을 중심으로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大阪府立圖書館本

日本 大阪府立圖書館 所藏本の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林園十六志/ 徐有渠 纂. -筆寫本.- 筆寫年度未詳, 31冊[稿本], 大小不同.

左右雙邊, 半郭: 19×14cm, 有絲欄, 半葉 10行20字(小字雙行), 上下細黑口

版心下 或有: 自然徑室藏

第2~3冊: 本利志가 아닌 杏蒲志(1~4권)를 수록; 仁濟志는 引만 있고 본문은 없음.

大阪府立圖書館本の 편성체제는 第1冊은 16志의 차례로 각각의 引(序文)과 林園十六志例言(7項)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第2冊부터 31冊까지 16志의 순서대로 본문을 수록하였는데, 특히 第2~3책은 本利志가 아닌 杏蒲志(1~4권)가 들어 있고, 仁濟志는 引은 있지만, 本文이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大阪本은 本利志와 仁濟志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16志의 형태로 꾸민 이른바 稿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나. 奎章閣本

奎章閣 所藏本の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林園十六志/ 徐有渠 纂. -筆寫本.- 筆寫年度未詳, 52冊(魏鮮志 卷1·2 缺), 26,4×18,8cm,

表題名: 林園經濟志

奎章閣本은 魏鮮志 卷1·2 1책이 缺한 5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首에는 林園十六志例言, 林園十六志總目, 林園十六志引用書目, 本利志引, 本利志總目 이어 16志의 순서대로 본문

14) 外國 소장본은 본 연구자가 확인할 수 없어 李盛雨의 韓國食經大全에서 그대로 전제하였음.[李盛雨, 韓國食經大全(서울: 鄉文社, 1981), p.85]

15) 李盛雨의 韓國食經大全에 수록된 내용을 재인용하여 편성하였음.[李盛雨, 韓國食經大全(서울: 鄉文社, 1981), pp.86-87]

이 수록되어 있는 편성체제를 이루고 있다. 奎章閣本의 특징은 日本 大阪本에 누락된 林園十六志總目, 林園十六志引用書目이 수록되어 있지만, 반면에 本利志引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志의 引이 들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에서는 1966년 奎章閣本을 底本으로 하고, 奎章閣本에 누락된 魏鮮志 卷1·2을 高麗大本으로 補完하여 6冊으로 묶어 影印 간행하였으며, 이후 1983년 保景文化社와 1991년 民俗院에서 이를 다시 5책으로 묶어 영인 간행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1991년 民俗院에서 간행한 영인본을 바탕으로 임원십육지의 편성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林園十六志의 편성체제

林園十六志는 林園十六志例言,¹⁶⁾ 林園十六志總目, 林園十六志引用書目, 16志(本利志, 灌畦志, 藝苑志, 晚學志, 展功志, 魏鮮志, 佃漁志, 鼎俎志, 瞻用志, 葆養志, 仁濟志, 鄉禮志, 遊藝志, 怡雲志, 相宅志, 倪圭志)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例言(7項)에서는 命名한 까닭, 수록범위, 各志의 체제, 서술양식 및 전거를 밝히는 요령 등이 차례로 밝혀져 있고, 總目에서는 16志의 目次를 志(16志), 大目(領), 細條(細目)까지 명기하였으며, 引用書目에서는 林園十六志를 편찬할 때 참고한 800여종의 서적을 經·史·子·集의 순서대로 서명과 저자를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16志의 本문을 배치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例言에서는 林園十六志라는 서명에 관해 “... 이에 鄉居의 일을 채록하여 마땅하게 분류하고, 수많은 책을 참고하여 ‘林園’이라 한 것은 벼슬아치들이 濟世하는 방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두는 바이다”¹⁷⁾ 또한 “분류 배열하여 志를 만든 것이 16이니 이것이 綱이다”¹⁸⁾라고 한 바와 같이 林園十六志는 鄉居와 관련있는 모든 일을 내용에 따라 16지로 편성하고 수많은 책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鄉居에 필요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6志로 편성된 林園十六志는 어떤 체제로 편성되었을까? 계속해서 例言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분류 배열하여 志를 만든 것이 16이니 이것이 綱이다. 또한 各 志에는 大目を 두어 領으로 삼고, 大目の 아래에는 細條(細目)를 두고, 이 細條(細目)의 아래에 수많은 책을 참고하여 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이것이 곧 例(項目)이다”¹⁹⁾와 같이 각각의 志(16志)는 세분하여 大目(領) → 細條(細目) → 例(項目)의 편성체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林園十六志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도 例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

16) 原文에는 ‘園十六志例言’으로 표기되어 있음.

17) … 於此畧採鄉居事宜分部立目搜羣書而實之以林園標之者所以明非仕宦濟世之術也.

18) 分別部居爲志者十六此綱也

19) 分別部居爲志者十六此綱也於各志之內有大目領之大目之下有細條以從之於此細條之下乃按群書而實之此乃例也

는 바, “무릇 耕織種植의 방법과 飲食畜獵의 방법은 모두 향거에 필요한 것이다. 일기를 짐쳐서 (占候) 권농하고, 터를 택하여 집을 지으며, 재물을 불림으로서 이익을 얻고, 기구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들도 또한 마땅한 바가 있다. … 꽃을 가꾸고, 문방과 서화를 익히는 것도 그만 둘 수 없다. 의약은 궁핍함에 이르렀을 때 비급의 용도가 되며, 길흉 등의 예도 정히 마땅하니 대략 강구하여 행에 더하였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 수집하고 채록하였다”²⁰⁾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16志와 대비하여 보면, ‘耕’은 耕作에 관련된 분야로 농사기술과 경작문제를 다루고 있는 本利志(卷1-13)와 채소류·과채류·약초류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灌畦志(卷14-17)에 해당하며, ‘織’은 蠶績에 관한 것으로 展功志(卷28-32), ‘種植’은 과실류, 경제수종의 木類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재배법을 다룬 晚學志(卷23-27), ‘飲食’은 식품의 재료와 조리법 등을 다룬 鼎俎志(卷41-47), ‘畜獵’은 牧養總論과 農村經濟의 實用的인 飼養 등을 다룬 佃漁志(卷37-40)에 해당한다. 그리고 ‘占候’는 農業氣象·天文關係·吉日選擇 등에 관한 것으로 魏鮮志(卷33-36), ‘相基’는 居住地의 선택법 등을 다룬 相宅志(卷107-108), ‘殖貨營生’은 농업경제문제를 다룬 倪圭志(卷109-113), ‘庀器利用’은 日常生活에 필요한 用品 등에 관해 설명한 瞻用志(卷48-51), ‘藝苑’은 花卉類의 栽培法 등을 다룬 藝苑志(卷18-22), ‘文房’은 선비들의 趣向 및 생활과 관련된 일용의 모든 기구와 문방구에 관한 怡雲志(卷99-106), ‘雅課’는 선비들이 배우던 각종 技藝를 다룬 遊藝志(卷93-98), ‘醫藥’은 韓方醫藥에 관한 설명한 仁濟志(卷60-87), ‘頤養’은 양생론에 관해 설명한 葆養志(卷52-59), ‘吉凶禮’는 鄉里의 年中行事와 의식을 다룬 鄉禮志(卷88-92)로 대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林園十六志의 순서대로 各志에 수록된 總目的 내용을 중심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林園十六志의 體制

例言	志	總目
耕	本利志(卷1-13)	田制, 水利, 辨壤, 審時, 營治, 種蒔 上·下, 收藏, 穀名攷, 五害攷, 田家曆表, 新定田家曆表, 農器圖譜 上·下, 灌溉圖譜 上·下
	灌畦志(卷14-17)	總敍, 蔬類, 蒔類, 藥類
藝苑	藝苑志(卷18-22)	總敍, 花類上·下, 卉類, 花名攷
種植	晚學志(卷23-27)	總敍, 菓類, 蒔類, 木類, 雜類
織	展功志(卷28-32)	蠶績上·下, 麻績, 綿績, 蠶桑圖譜, 紡織圖譜
占候	魏鮮志(卷33-36)	候歲, 候風雨
畜獵	佃漁志(卷37-40)	牧養上·下, 弋獵, 漁釣, 魚名攷
飲食	鼎俎志(卷41-47)	食鑑撮要, 炊餽之類, 飲清之類, 菓飭之類, 咬茹之類, 割烹之類, 味料之類, 醞酪之類, 節食之類
庀器利用	瞻用志(卷48-51)	營造之制, 營造之具, 樵汲之具, 炊爨之具, 盥櫛之具, 起居之具, 設色之具, 火燭之具, 騎乘之具, 運輸之具, 度量之具, 工制總纂

20) 凡耕織種植之術飲食畜獵之法皆鄉居之需也占候以勸農相基以下築及夫殖貨營生庀器利用之節亦所宜有故今所蒐採也… 藝苑肄習文房雅課以及頤養之方所不能已者至如醫藥爲窮弱備急之用吉凶等禮正宜畧加講行者故亦並蒐採焉

頤養	葆養志(卷52-59)	總敘, 精氣神, 起居飲食, 修真, 服食, 壽親養老, 求嗣育嬰, 養生月令表
醫藥	仁濟志(卷60-87)	內因, 外因, 內外兼因, 婦科, 幼科, 外科, 備急, 附餘
吉凶禮	鄉禮志(卷88-92)	通禮, 冠婚禮, 喪祭禮
雅課·文房	遊藝志(卷93-98) 怡雲志(卷99-106)	讀書法, 射訣, 算法, 書筏, 畫筌, 房中樂譜 衡泌鋪置, 怡養器具, 山齋清供, 文房雅製, 藝翫鑑賞, 圖書藏訪, 燕閒功課, 各勝遊衍, 文酒譚會, 節辰賞樂
相墓	相宅志(卷107-108)	占墓, 營治, 八域名墓
殖貨營生	倪圭志(卷109-113)	制用, 貨殖, 八域程里表

Ⅳ. 農學分野 引用文獻과 引用書目과의 比較 分析²¹⁾

林園十六志 卷首에는 徐有渠가 林園十六志를 편찬하면서 참고한 문헌을 '林園十六志引用書目' 下에 經·史·子·集 등의 四部法으로 분류하여 經部 29종, 史部 66종, 子部 708종, 集部 18종, 그리고 附錄으로 徐有渠의 祖父인 文靖公 徐命膺과 父인 文敏公 徐浩修, 그리고 본인이 저술한 서적 등 총 832종 문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각 志의 인용항목에 표기된 인용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引用書目に 없는 문헌이 다수 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本書名의 誤記 또는 異書名, 略書名 등이 나타나는 등 引用書目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農學分野(農業, 園藝, 畜·蠶桑)에 속하는 本立志, 灌畦志, 藝苑志, 晚學志, 展功志, 佃漁志 등 6개 志의 인용문헌을 먼저 살펴보고, 이들 인용문헌을 인용서목 또는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本書名의 誤記,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바로잡아 각 志의 인용문헌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인용문헌의 회수를 파악하는데 기초를 삼고자 한다.

분석결과, 농학 분야인 農業, 園藝, 畜·蠶桑 분야인 6개 志의 인용문헌은 총 398종이며, 이들 인용문헌을 각 志별로 살펴보면, 농업기술과 경작문제를 다루고 있는 本立志는 116종, 채소류와 약초류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灌畦志는 86종, 花卉分野의 藝苑志는 105종, 과실수와 경제수종의 木類 등에 관한 재배법을 다룬 晚學志는 137종, 蠶桑에 대해 논하고 있는 展功志는 77종, 水産과 牧畜을 다루고 있는 佃漁志는 77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인용문헌은 앞서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書名의 表記上 誤謬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 등의 표기로 인하여 동일 서적이 다른 서명으로 표기되고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를 引用書目 또는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바로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誤記로 보이는 인용문헌은 鏡理玉函²²⁾은 鏡裏玉函,²³⁾ 癸辛雜志²⁴⁾는 宋 周密의 癸辛雜

21) 본 연구에서 각각의 인용항목에 표기된 문헌의 서명을 총칭하여 '引用文獻'이라 하였고, '引用書目'은 임원십육지의 권수에 제시된 문헌의 서명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22) 灌畦志 蔬類 菜菔(附 胡蘿蔔)의 種胡蘿蔔法; 展功志 蠶績上 栽桑의 擇種·移栽·接換·地桑; 蠶績下 養蠶의 收種·浴連·飼養總論·擘黑·戒忌, 繰繭의 擇治繭.

23) 引用書目에는 '鏡裏玉函'으로 표기됨.

識,²⁵⁾ 曲有舊聞²⁶⁾은 宋 朱弁의 曲洧舊聞,²⁷⁾ 金耕讀記²⁸⁾는 徐有渠의 金華耕讀記, 農家直說²⁹⁾은 鄭招의 農事直說,³⁰⁾ 農事集成³¹⁾은 農家集成,³²⁾ 茅亭客語³³⁾는 明 黃休復의 茅亭客語,³⁴⁾ 夢漢補筆談³⁵⁾은 宋 沈括의 補筆談,³⁶⁾ 文昌雜志³⁷⁾는 文昌雜錄,³⁸⁾ 本草行義³⁹⁾는 本草衍義, 拾遺本草⁴⁰⁾는 晉 藏器的 本草拾遺, 研經堂雜抄⁴¹⁾는 朝鮮 후기의 학자인 成海應(1760~

- 24) 藝苑志 總敘의 瑣言, 花類下 菊의 傳種: 晚學志 菓類 桃의 醫治, 蔬類 葡萄의 種藝, 雜植 竹의 時候: 佃漁志 弋獵 鷹犬의 馴獵狗法.
- 25) 引用書目에는 '癸辛雜志(宋 周密)'라고 표기되었으나,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1040冊 子部346 小說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에는 '癸辛雜識'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고에서는 '癸辛雜識'으로 통일하였음.
- 26) 本利志 種菽下 麥類의 種蕎麥法.
- 27) 다음과 같이 인용항목의 내용이 동일함.
 曲有舊聞: 蕎麥方結實時最畏霜得雨則於結實尤宜且不成霜[林園經濟志 一(서울: 民俗苑, 1991), p.144].
 曲洧舊聞: 方結實時最畏霜此時得雨則於結實尤宜此不成霜[(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63冊 子部169 雜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305].
- 28) 藝苑志 花類上 迎春化의 種藝.
- 29) 展功志 麻績 藝大麻(附 道麻裁法)의 時候.
- 30) 다음과 같이 인용항목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
 農家直說: 二月上旬種(中句爲中時下旬爲下時至於此土寒氣晚解要當隨時適宜[林園經濟志 一, (서울: 民俗苑, 1991), p.519].
 農事直說: 二月上旬更耕之(中句爲中時下旬爲下時至於北土寒氣晚解要當隨時適宜九穀做此)[韓國學文獻研究所編, 農書 1(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p.9].
- 31) 本利志 營治 開墾의 墾沮濕荒地法.
- 32) 다음과 같이 인용항목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
 農事集成: 濕田不宜種菽處經霜後刈草剝之厚布種小麥則麥極茂而翌年變爲乾田雖種木綿亦宜嶺南左道人行之.[林園經濟志 一(서울: 民俗苑, 1991), p.108].
 農家集成: 濕田不宜種穀處經霜後刈草剝之厚布種小麥則麥極好而翌年變爲乾田至種木花亦宜(慶尙左道人行之)[韓國學文獻研究所編, 農書 1(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p.149].
- 33) 藝苑志 花類下 荷花의 盆種法.
- 34)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1042冊 子部348 小說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35) 佃漁志 漁釣 釣籍의 捕河豚法.
- 36) 다음과 같이 인용항목의 내용이 동일함.
 夢漢補筆談: 南人捕河豚法截流爲柵待羣魚大下之時小拔去柵使順流而下莫猥至日自相排蹙或觸柵則怒而腹鼓浮於水上漁人來接取之[林園經濟志 二(서울: 民俗苑, 1991), p.195].
 補筆談: 南人捕河豚法截流爲柵待羣魚大下之時小拔去柵使隨流而下莫猥至日自相排蹙或觸柵則怒而腹鼓浮於水上漁人乃接取之[(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862冊 子部168 雜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886-887].
- 37) 인용서목에는 '文昌雜志(宋 龐元英)'이며, 인용문헌에는 '文昌雜錄'인데 (影印)文淵閣四庫全書[第862冊 子部168 雜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658]에는 '文昌雜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引用書目的 표기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 38) 다음과 같이 인용항목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였음.
 文昌雜錄: 李冠卿家一杏樹花多而不實適一媒姥見之笑曰來春與嫁此樹冬深忽携一樽酒來云婚家揀門酒索處女裙繫樹上奠酒辭祝再三而去來春杏果結子無數[林園經濟志 一(서울: 民俗苑, 1991), p.401].
 文昌雜錄[(影印)文淵閣四庫全書]: 李冠卿說楊州所居堂前杏一窠極大花多而不實適有一媒姥見如此笑謂家人曰來春與嫁了此杏冬深忽携酒一樽來云是婚家揀門酒索處子裙一腰繫杏上已而奠酒辭祝再三家人莫不笑之至來春此杏結子無數...[(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62冊 子部168 雜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658].
- 39) 晚學志 蔬類 薯蕷의 名品.
- 40) 晚學志 蔬類 (附)浦海菜品の 海藻.
- 41) 晚學志 菓類 林檎의 醫治.

1839)의 研經堂雜誌, 容齋隨筆⁴²⁾은 宋 洪邁의 容齋隨筆,⁴³⁾ 元司農司才農桑要⁴⁴⁾는 元 司農司가 찬술한 農桑輯要(元 司農司所撰), 六書精組⁴⁵⁾는 六書精蘊,⁴⁶⁾ 因樹屋書影⁴⁷⁾은 淸 周亮工的 仁樹屋書影, 傳異記⁴⁸⁾는 唐 谷神子の 博異記, 酒陽雜俎⁴⁹⁾는 唐 殷成式の 酉陽雜俎, 增補陶朱分書⁵⁰⁾는 增補陶朱公書,⁵¹⁾ 韓氏有說⁵²⁾은 韓氏直說⁵³⁾ 등 20종으로 이와 같은 誤記는 筆寫過程에서의 오류로 보인다.

한편 인용문헌의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林園十六志의 引用書目 또는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바로 잡아보면, 顧氏茶譜⁵⁴⁾는 明 顧元慶의 茶譜, 管子地員⁵⁵⁾은 齊 管仲의 管子, 歐陽氏洛陽牧丹記⁵⁶⁾는 宋 歐陽修的 洛陽牧丹記,⁵⁷⁾ 金氏甘藷譜⁵⁸⁾는 朝鮮의 金長淳과 宣宗漢이 共編한 甘藷譜, 農桑輯要⁵⁹⁾는 元 司農司가 찬술한 農桑輯要,⁶⁰⁾ 東國文獻備考⁶¹⁾는 朝鮮 英祖命撰의 文獻備考, 東坡志林⁶²⁾은 宋 蘇軾의 志林, 馬氏農說⁶³⁾은 明 馬一龍의 農說, 孟祺農桑輯要⁶⁴⁾

42) 晚學志 蔬類 茄의 名品.

43)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51冊 子部157 雜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44) 蔬類 西瓜의 種藝.

45) 晚學志 木類 柏의 名品.

46) 인용항목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

六書精組: 萬木皆向陽而柏獨西指蓋陰木而有貞德者故字從白白者西方也[林園經濟志 一(서울: 民俗苑, 1991), p.446].

六書精蘊: 柀木皆向易.惟柏西指.蓋陰木而有貞德者也.故從白白.稟西方...[魏校(明)撰., 六書精蘊. 卷六, p.10].

47) 佃漁志 弋獵 鷹犬의 馴獵狗法.

48) 晚學志 總敘 護養의 禦風法.

49) 晚學志 總敘 護養의 辟禽蟲法.

50) 晚學志 木類 五加의 時候.

51) 6개 志에서 '增補陶朱公書'가 58회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나, '增補陶朱分書'는 단 1회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增補陶朱分書'는 '增補陶朱公書'의 오기로 추정됨.

52) 展功志 蠶績上 栽桑의 地桑.

53) 引用書目에는 '韓氏直說'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개 志에서 '韓氏直說'은 15회 나타나고 있으나, '韓氏有說'은 단 1회만 나타나기 때문에 '韓氏有說'은 '韓氏直說'의 誤記로 추정된다.

54) 晚學志 雜植 茶의 名品, 蒸焙, 收藏.

55) 本利志 辨壤 總敘의 相土總論.

56) 藝苑志 花類上 牧丹의 土宜, 花名攷 牧丹의 黃類, 紅類, 紫類, 白類, 異色類.

57) 다음과 같이 인용항목의 내용이 동일함.

歐陽氏洛陽牧丹記: 種花必擇善地

洛陽牧丹記: 種花必擇善地[(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45冊 子部151 譜錄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7].

58) 晚學志 蔬類 甘藷의 土宜, 時候, 傳種, 種藝, 移插, 剪藤, 醫治, 收採, 製造, 功用.

59) 本利志 種藝上 擇種의 治田法: 灌畦志 總敘 收藏의 藏菜法: 晚學志 總敘 護養의 辟禽蟲法: 展功志 棉績 種棉의 收採.

60) 展功志 棉績 種棉의 收採에 인용된 항목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동일하였음.

農桑輯要: 收採待棉欲落時爲熟旋熟旋摘

農桑輯要(元 司農司所撰): ...待棉欲落時爲熟旋熟旋摘...[(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730冊 子部36 農家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220].

61) 佃漁志 漁釣 罟罾의 注朴網.

62) 晚學志 雜植 竹의 擇種과 醫治.

와 孟氏農桑輯要⁶⁵⁾는 明 孟祺의 農桑輯要, 墨客揮犀는 宋 彭乘의 (續)墨客揮犀, 聞龍茶箋⁶⁶⁾은 明 聞龍의 茶箋, 伯樂相馬經⁶⁷⁾은 周 伯樂의 相馬經, 范氏菊譜⁶⁸⁾는 宋 范成大的 菊譜, 徐光啓耕田攷⁶⁹⁾와 徐光啓用水疏,⁷⁰⁾ 徐光啓量算河工及測驗地勢法,⁷¹⁾ 徐光啓看泉法,⁷²⁾ 徐光啓看地勢法,⁷³⁾ 徐光啓除蝗疏,⁷⁴⁾ 徐光啓授時編⁷⁵⁾은 明 徐光啓의 農政全書, 徐玄扈甘藷蔬는 明 徐光啓의 甘藷蔬,⁷⁶⁾ 薛氏亳州牧丹記와 薛氏亳州牧丹史는 明 薛鳳翔의 亳州牧丹史,⁷⁷⁾ 歲時廣記集正曆⁷⁸⁾는 宋 陳元靚의 歲時廣記, 詩草木疏⁷⁹⁾는 唐 陸璣의 毛詩艸木蟲魚疏,⁸⁰⁾ 沈立海棠記와 沈氏海棠記는 宋 沈立의 海棠記,⁸¹⁾ 呂覽審時와 呂覽任地 그리고 呂覽辨土는 呂不韋의 呂氏春秋, 寧戚相牛經⁸²⁾은 齊 寧戚의 相牛經, 王觀揚州芍藥譜序, 揚州芍藥譜序,⁸³⁾ 王氏揚州芍藥譜⁸⁴⁾ 그리고 王氏揚州芍藥記⁸⁵⁾는 宋 王觀의 揚州芍藥譜, 王氏農書와 王禎授時圖,⁸⁶⁾ 그리고 馮應京論王氏授時圖⁸⁷⁾는 元 王禎의 農書,⁸⁸⁾ 王安石字說⁸⁹⁾은 宋 王安石의 王

63) 本利志 營治 總敘의 治稼總論.

64) 灌畦志 蔬類 菠薐의 時候.

65) 本利志 種菘下 麥類의 收藏法; 展功志 蠶績下 養蠶의 涼暖總論.

66) 晚學志 雜植 茶의 收採, 蒸焙.

67) 佃漁志 牧養上 馬의 相法.

68) 藝苑志 花名攷 菊의 黃類, 紅類, 粉紅類, 紫類, 白類.

69) 本利志 田制 頃畝結負의 論古今尺法.

70) 本利志 水利 總敘의 總論治水之利와 論用水互法

71) 本利志 水利 河渠의 測量地勢法.

72) 本利志 水利 井川의 引泉溉田法.

73) 本利志 水利 井川의 引泉溉田法.

74) 本利志 五害攷 蟲害의 蝗蝻과 除蝗法.

75) 本利志 田家曆表와 新定田家曆表.

76) 徐光啓의 號는 '玄扈'로 이 책은 徐光啓가 1608년에 찬술하였다.[王毓瑚, 中國農學書錄(東京: 龍溪書舍, 1975), p.171.]

77) 薛氏亳州牧丹記와 薛氏亳州牧丹史의 '薛氏'는 明 萬曆年間에 살았던 '薛鳳翔'이며, '亳州'人이다.[王毓瑚, 中國農學書錄(東京: 龍溪書舍, 1975), p.171-172.]

78) 展功志 蠶績下 養蠶의 浴連.

79) 展功志 麻績 藝苧麻의 苧麻.

80) 인용항목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

詩草木疏 : 苧一科數十莖宿根在地至春自生不須別種荊揚間三刈剝皮煮之用緝[林園經濟志 一(서울: 民俗苑, 1991), p.520].

毛詩艸木蟲魚疏 : 紵亦麻也科生數十莖宿根在地中至春自生不歲種也荊揚之間一歲三收(一作刈)今官園種之歲在割割便生剝之以鑲若竹刮其表厚皮自脫但得其裏韌如筋者煮之用緝謂之徽紵今南越紵布皆用此麻[(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第70卷 經部64 詩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p.7].

81) 王毓瑚, 中國農學書錄(東京: 龍溪書舍, 1975), p.71.

82) 佃漁志 牧養下 牛의 相法.

83) 藝苑志 花類下 芍藥의 種藝에서 '王觀揚州芍藥譜序'라고 기술한 후, 바로 다음에 나오는 澆壘, 葺理, 瑣言에서 '揚州芍藥譜序'라고 표기하였다.

84) 藝苑志 花名攷 芍藥의 黃類, 紫類, 白類.

85) 藝苑志 花名攷 芍藥의 紅類.

86) 本利志 田家曆表와 新定田家曆表.

87) 本利志 審時 經緯度의 論南北節候之差.

氏字說, 元司農司農桑輯要是 元 司農司 撰述의 農桑輯要, 陸氏天彰牧丹記와 陸氏天彰牧丹譜는 宋 陸游의 天彰牧丹譜,⁹⁰⁾ 張約齊種花法注⁹¹⁾는 張約齊의 種花法, 齊民要術註⁹²⁾는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 趙氏金漳蘭譜⁹³⁾는 宋 趙時庚의 金漳蘭譜,⁹⁴⁾ 秦氏農書⁹⁵⁾와 秦氏蠶書⁹⁶⁾는 宋 秦觀의 蠶書,⁹⁷⁾ 陳氏農書는 宋 陳敷의 農書, 蜀本艸蒐⁹⁸⁾은 蜀本草,⁹⁹⁾ 稗史類編¹⁰⁰⁾은 明 王圻의 稗史類, 許氏茶疏는 明 許次紆의 茶疏, 黃省會種芋法¹⁰¹⁾ 明 黃省會의 種芋法¹⁰²⁾ 등 53종으로 인용문헌은 馬氏農說, 孟祺農桑輯要, 陳氏農書, 王氏農書, 元司農司農桑輯要와 같이 書名 앞에 著者의 姓이나 姓名 또는 편찬을 담당한 官廳名을 冠記하여 同名異書의 文헌을 구분하였으나, 卷首의 引用書目에서는 農桑輯要(元 司農司所撰), 農桑輯要(明 孟祺)와 같이 書名 뒤의 괄호 안에 저작에 관련된 인물과 관청을 기입하는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학분야 6개 志의 인용문헌 398종을 위에서 밝힌 誤記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농학분야 6개 志를 편성하면서 인용한 문헌의 종수는 41종이 줄어든 총 357종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志別로 誤記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의 정리 以前과 정리 以後의 인용문헌을 비교해 보면, 本利志는 116종에서 104종, 灌畦志 86종에서 81종, 藝苑志는 105종에서 94종, 晚學志는 137종에서 128종, 展功志는 77종에서 73종, 佃漁志는 77종에서 76종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6개 志의 인용문헌 357종을 '林園十六志 引用書目'에 수록되어 있는 832종과 비교하여 文獻의 有無를 분석한 결과, '林園十六志 引用書目'과 일치하는 문헌은 총 234종이며, 인용서목에

88)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730冊 子部36 農家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320-321, 422-423.

89) 灌畦志 蔬類 薑의 名品.

90) 藝苑志 花名攷 牧丹에서 陸氏天彰牧丹記와 陸氏天彰牧丹譜로 표기하였으나, 宋 陸游가 1178년에 찬술한 天彰牧丹譜로 보임.

91) 晚學志 總敘 接換의 總論과 身接法.

92) 灌畦志 蔬類 葵의 名品과 紫蘇의 時候, 蓴類 葡萄의 護讓.

93) 藝苑志 花類下 蘭花의 土宜.

94) 인용항목의 내용이 동일함.

趙氏金漳蘭譜 : 養蘭作臺太高則 … 西陽也[林園經濟志 一(서울: 民俗苑, 1991), pp.342-343].

金漳蘭譜 : 太高則 … 西陽也[(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45冊 子部151 譜錄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p.126].

95) 展功志 蠶績下 養蠶의 飼養總論.

96) 展功志 蠶績下 養蠶의 浴連과 祈穰, 蠶績下 繰繭의 餵頭.

97) 인용항목의 내용이 동일함.

秦氏農書 : 蠶生明日桑或柘葉風戾以食之寸二十分晝夜五食九日…蠶警母食二葉.[林園經濟志 一(서울 : 民俗苑, 1991), p.503].

蠶書 : 蠶生明日桑或柘葉風戾以食之寸二十分晝夜五食九日…蠶警母食二葉[(影印)大淵閣四庫全書, 第730冊 子部36 農家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98) 灌畦志 蔬類 莧의 名品.

99) '蜀本草蒐'은 '蒐(비름)'을 설명하고 있는 '蜀本草'를 표기한 것으로 보임.

100) 晚學志 蓴類 甘藷의 名品과 功用.

101) 灌畦志 蓴類 芋의 名品, 土宜, 種藝, 藏種.

102) 王毓瑚, 中國農學書錄(東京: 龍溪書舍, 1975), p.144.

누락되어 있는 문헌은 총 123종으로 확인되었다.(<부록 1> 참고) 그러면 123종은 引用書目에 왜 누락되어 있을까? 이것은 곧 인용서목과 일치한 인용문헌은 1차 자료인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인용서목에 누락된 인용문헌은 원문의 직접인용이 아닌 간접인용을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徐有槩가 6개 志를 편찬하면서 인용한 357종 문헌 가운데 234종의 문헌은 원문(1차 자료)의 직접 인용을, 그리고 123종의 문헌은 간접 인용을 통하여 편찬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V. 引用文獻의 引用回數 分析

앞 장에서 農學分野 인용문헌 가운데 誤記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정리하여 6개 志의 引用文獻을 규명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하여 農學분야 인용문헌 357종의 인용회수를 분석하여 林園十六志의 농학분야를 편찬하는데 핵심이 되었던 문헌을 밝혀보고자 한다. 6개 志의 인용회수는 다음과 같다.¹⁰³⁾

1. 本利志

농업기술과 경작문제를 다루고 있는 本利志는 총 103종의 문헌에서 총 743회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다. 인용회수가 가장 높은 문헌은 元の 王禎이 1313년에 완성한 農書가 145회, 徐有槩의 杏蒲志 121회, 明의 徐光啓가 1639년에 저술한 農政全書 47회, 後魏 賈思勰이 6세기 무렵에 저술한 齊民要術 33회, 鄭招 등이 조선 世宗의 명에 의해 1429년 편찬한 農事直說과 明의 宋應星이 1637년 저술한 天工開物 각각 30회, 明 王象晉이 1621년 찬술한 羣芳譜와 宋 陳敷가 1149년 펴낸 農書 각각 22회, 前漢시대 范勝之가 편찬한 汜勝之書 20회, 조선 후기 실학자 朴趾源이 1799년에 편찬한 課農小抄 14회, 宋 戴埴의 鼠璞 11회, 조선 孝宗때의 文臣인 申澗이 1655년에 편찬한 農家集成과 2세기 중국의 月令書인 四民月令, 그리고 徐浩修의 海東農書가 각각 10회 등 14종은 비교적 인용문헌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인용회수가 9회인 문헌이 3종, 8회 2종, 7회 3종, 6회 1종, 5회 2종, 4회 9종, 3회 7종, 2회 19종, 1회 43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용빈도수가 높은 위의 14종의 인용회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743회의 인용회수 가운데 525회인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本利志의 편찬에 핵심이 된 문헌은 農書(王禎)와 杏蒲志 등 14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문헌의 인용방법을 밝히기 위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103) 1장의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李盛雨는 韓國食經大全에서 本利志, 灌畦志, 晚學志, 佃漁志, 鼎俎志, 贍用志, 葆養志, 仁濟志, 怡雲志 등 9개 志를 대상으로 食品營養에 관련한 目次와 인용문헌의 빈도수를 수록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용문헌의 종수와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本利志는 水利, 晚學志는 總敘, 佃漁志는 魚名攷 등의 大目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문헌종수와 인용회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03종 가운데 문헌의 직접인용은 64종(62%) 637회(86%)이며, 간접인용은 39종(38%) 102회(14%)로 本利志는 1차 자료의 직접 인용을 통한 편찬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2. 灌畦志

채소류와 약초류 등을 다룬 灌畦志는 81종의 문헌에서 총 749회의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다. 문헌의 인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문헌은 明 萬曆 6년(1578) 李時珍이 편찬한 本草綱目이 116회이며, 朝鮮의 洪萬選이 18세기 초엽에 찬술한 山林經濟를 柳重臨 증보한 增補山林經濟 60회,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 59회, 元의 王禎農書 53회, 明 徐光啓의 農政全書 48회, 唐 현종때 王昉이 저술한 山居錄과 徐有榘의 杏蒲志가 각각 39회, 明 王象晋의 羣芳譜 32회, 四時類要 23회, 1232-1238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의 務本新書 20회, 元 世祖의 명을 받아 1273년 司農司에서 펴낸 農桑輯要와 宋 蘇頌이 저술한 醫書인 圖經本草 그리고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補充한 山林經濟補, 日本의 良安尙順이 1715년에 찬술한 백과전서 和漢三才圖會가 각각 19회, 增補陶朱公書 16회, 朝鮮 英·正祖 대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저자미상의 種蓼譜 12회, 중국 後漢의 崔寔이 찬술한 月令書인 四民月令과 徐浩修의 海東農書가 각각 10회 등 18종의 문헌이 비교적 인용회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도 8회(2종), 7회(2종), 6회(3종), 4회(4종), 3회(4종), 2회(12종), 1회(36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灌畦志는 韓·中 서적은 물론, 일본의 백과전서인 和漢三才圖會까지도 인용하였고, 특히 醫書인 本草綱目이 많이 인용된 것은 채소류와 약초류 등의 品名 설명에서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일실된 문헌으로 알려지고 있는 저자미상의 種蓼譜가 12회나 인용되었는데, 앞으로 일실문헌의 발굴 또는 복원 측면에서 많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18종 문헌의 인용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49회 가운데 613회인 82%의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灌畦志의 편찬에 기본이 되었던 서적은 本草綱目과 增補山林經濟 등 18종의 문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헌의 인용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종수와 인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81종 중 직접 인용은 68종(84%) 693회(93%)이며, 간접 인용은 13종(16%) 57회(7%)로 灌畦志는 1차 자료의 직접 인용을 통한 편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藝苑志

花卉類를 다루고 있는 藝苑志는 94종의 문헌에서 총 1404회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다. 문헌의 인용회수가 가장 높은 문헌은 明의 王象晋이 1621년에 찬술한 羣芳譜가 519회이며, 이어서 明

萬曆年間에 薛鳳翔이 찬한 亳州牧丹史 107회, 徐有渠의 金華耕讀記 60회, 조선 世祖 때의 姜希顔이 저술한 菁川養花錄 59회, 宋 歐陽修의 洛陽牧丹記와 宋 王觀의 揚州芍藥譜가 각각 43회, 宋의 趙時庚이 13세기에 저술한 金漳蘭譜가 39회, 宋 范成大的 菊譜 33회, 高濂의 草花譜와 宋 陸游가 1178년에 찬술한 天彰牧丹譜가 각각 32회, 宋 劉蒙이 1104년 저술한 劉氏菊譜 29회, 宋의 王貴學이 1247년에 저술한 王氏蘭譜와 增補陶朱公書 각각 28회, 宋 周師厚的 周氏洛陽菊譜 26회,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25회, 唐 郭橐駝의 種樹書와 日本 良安尙順의 和漢三才圖會 각각 24회, 明 李時珍의 本草綱目과 明 王世懋의 學圃餘疏 각각 21회, 徐光啓의 農政全書 19회, 明 謝肇淛의 五雜俎 16회, 宋 史正志가 1175년 저술한 史氏菊譜 14회, 園圃日考 13회 등 23종은 인용회수가 비교적 높은 문헌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밖에도 8회(2종), 7회(2종), 6회(2종), 5회(3종), 4회(3종), 3회(5종), 2회(11종), 1회(43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 문헌 가운데 明 王象晉의 羣芳譜와 亳州牧丹史, 그리고 洛陽牧丹記 등 중국의 園藝書가 많이 인용된 까닭은 藝苑志 卷5 花名攷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24종의 문헌은 전체 1404회의 인용회수 가운데 1251회인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藝苑志의 편찬에 기본이 되었던 문헌은 羣芳譜, 金華耕讀記, 洛陽牧丹記 등 24종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문헌의 인용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종수와 인용회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94종 중 문헌의 직접인용은 58종(62%) 1082회(77%)이며, 간접인용은 36종(38%) 322회(23%)로 농학분야의 6개 志 가운데 문헌의 간접인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藝苑志 역시 원문의 직접인용을 통한 편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4. 晚學志

과실수와 경제수종의 木類 등에 관한 재배법을 다룬 晚學志는 128종의 문헌에서 총 1132회의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다. 문헌의 인용회수가 가장 높은 문헌은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이 108회이며, 徐光啓의 農政全書 99회, 明 李時珍의 本草綱目 92회, 明 王象晉의 羣芳譜 80회,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63회, 唐 郭橐駝의 種樹書 53회, 徐有渠의 杏蒲志 52회, 良安尙順의 和漢三才圖會 44회, 明 鄭璠이 1502에 찬술한 便民圖纂 43회, 明 徐光啓가 1608년에 저술한 甘藷蔬 34회, 山林經濟補 28회, 農書(王禎) 24회, 金長淳과 宣宗漢이 純祖 13년(1813)에 共編한 甘藷譜와 金의 務本新書 각각 21회, 司農司撰 農桑輯要和 徐浩修의 海東農書 각각 19회, 宋 陳旉의 桐譜 16회, 宋 蘇頌이 1062년에 찬한 圖經本草와 宋 蘇軾의 物類相感志 그리고 博聞錄 각각 15회, 唐 韓鄂의 四時纂要 12회, 元末 徐吞甫가 지은 古今醫統과 朝鮮 英祖 46年(1766) 姜必履 찬술의 姜氏甘藷譜 그리고 元의 四時類要是 각각 11회 등 24종은 인용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문헌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밖에도 9회(3종), 8회(1종), 7회(1종), 6회(2종), 5회(5종), 4회(8종), 3회

(7종), 2회(17종), 1회(60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문헌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24종의 문헌은 전체 1132회의 인용회수 가운데 906회인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晩學志의 편찬에 핵심이 된 문헌은 齊民要術 등 24종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헌의 인용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종수와 인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8종의 인용문헌 가운데 직접인용은 100종(78%) 1030회(91%), 간접인용은 28종(22%) 102회(9%)로 晩學志는 1차 자료의 직접 인용을 통한 편찬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 展功志

蠶績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展功志는 73종의 문헌에서 총 604회의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다. 문헌의 인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문헌은 王禎의 農書 67회이며, 元 初의 日用百科全書인 士農必用 62회, 徐有渠의 鷓鴣志와 金의 務本新書 각각 47회, 徐光啓의 農政全書 43회, 明 宋應星의 天工開物 33회,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26회,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 25회, 古今秘苑 23회, 鏡裏玉函과 陳敷의 農書 각각 19회, 良安尙順의 和漢三才圖會 16회, 明 王象晉의 羣芳譜 14회, 明 李時珍의 本草綱目과 元初 田汝成的 居家必用 각각 13회, 元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韓氏直說 12회, 金代 또는 元初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農書인 農桑要旨 10회 등 17종의 문헌은 인용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밖에도 9회(1종), 6회(2종), 5회(3종), 4회(4종), 3회(4종), 2회(9종), 1회(33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인용 문헌 가운데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17종의 문헌은 전체 603회 인용 회수 가운데 489회인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展功志의 편찬에 기본이 된 문헌은 農書(王禎), 士農必用, 鷓鴣志 등 17종의 문헌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헌의 인용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의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종수와 인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73종의 문헌 가운데 직접인용은 59종(81%) 581회(96%)이며, 간접인용은 14종(19%) 36회(23%)로 展功志를 편찬하면서 1차 자료의 직접인용을 통한 편찬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 佃漁志

牧畜과 養魚에 대해 기술한 佃漁志는 76종의 문헌에서 총 717회의 인용회수를 보이고 있다. 인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문헌은 徐有渠가 1820년 경에 편찬한 전문 水産牧畜書인 蘭湖漁牧志가 牧養, 弋獵, 漁釣 등의 大目에서 250회 집중적으로 인용되었고, 宋 李械의 馬經 79회, 朝鮮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69회, 明 徐光啓의 農政全書 40회,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 38회, 日本 良安尙順의 和漢三才圖會 27회, 博聞錄 22회, 明 李時珍의 本草綱目 20회, 元初 田汝成的 居

家必用 15회, 元 王禎의 農書와 明 鄭璠의 便民圖纂이 각각 10회 등 11종의 문헌은 인용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밖에도 9회(1종), 8회(1종), 5회(4종), 4회(7종), 3회(4종), 2회(12종), 1회(36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문헌 가운데 인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11종의 문헌은 전체 717회 인용회수 가운데 580회인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용비율을 고려해 볼 때, 佃漁志의 편찬에 핵심이 된 문헌은 蘭湖漁牧志 등 11종의 문헌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헌의 인용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종수와 인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76종의 문헌 가운데 직접인용은 59종(78%) 685회(96%)이며, 간접인용은 17종(22%) 32회(4%)로 佃漁志는 1차 자료의 직접인용을 통한 편찬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농학분야 6개 志의 인용문헌 357종에 대한 인용회수를 살펴보았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로 제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학분야 6개 志의 총 인용회수는 전체 357종의 문헌에서 총 5349회로 밝혀졌다. 농학분야에서 인용빈도수가 아주 높은 100회 이상인 핵심문헌은 羣芳譜(667회), 農書(王禎)(299회), 農政全書(296회), 本草綱目(268회), 齊民要術(264회), 增補山林經濟(251회), 蘭湖漁牧志(250회), 杏蒲志(213회), 和漢三才圖會(137회), 亳州牧丹史(107회) 등 10종으로 대부분 백과전서 또는 종합농서의 성격을 갖춘 문헌과 특정분야의 전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00~91회 2종, 80~71회 2종, 70~61회 5종, 60~51회 2종, 50~41회 9종, 40~31회 8종, 30~21회 12종, 20~11회 16종, 10회 이하는 291종으로, 인용회수가 10회 이하인 문헌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회만 인용된 문헌이 165종 46%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개 志의 편찬에 핵심이 된 문헌을 각 志別로 살펴보면, 本利志 14종, 灌畦志 18종, 藝苑志 24종, 晚學志 24종, 展功志 17종, 佃漁志 11종 등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문헌의 인용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 종수와 인용 회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인용문헌 357종의 인용회수 5349회 가운데 원문의 직접인용은 234종(66%) 4712회(90%), 간접인용은 123종(34%) 637회(10%)로, 서유구가 農業, 園藝, 畜産 등 農學分野인 6개 志를 편찬할 때, 1차 자료의 직접인용을 통한 편찬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2> 인용문헌의 인용회수 분석율

인용방법 志別	直接引用		間接引用		계	
	文獻種數(率)	引用回數(率)	文獻種數(率)	引用回數(率)	文獻種數(率)	引用回數(率)
本利志	64(62%)	641(86%)	39(38%)	102(14%)	103(100%)	743(100%)
灌畦志	68(84%)	693(93%)	13(16%)	56(7%)	81(100%)	749(100%)
藝苑志	58(62%)	1,082(77%)	36(38%)	322(23%)	94(100%)	1,404(100%)
晚學志	100(78%)	1,030(91%)	28(22%)	102(9%)	128(100%)	1,132(100%)
展功志	59(81%)	581(96%)	14(19%)	23(4%)	73(100%)	604(100%)
佃漁志	59(78%)	685(96%)	17(22%)	32(4%)	76(100%)	717(100%)
계	234(66%)	4,712(90%)	123(34%)	637(10%)	357(100%)	5,349(100%)

VI. 結論

지금까지 1827년 경에 편찬된 林園十六志의 農學分野에 해당하는 本立志, 灌畦志, 藝苑志, 晚學志, 展功志, 佃漁志 등의 6개 志에서 인용된 문헌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農學分野의 인용문헌 가운데 표기상의 誤記로 확인된 문헌은 鏡理玉函 → 鏡裏玉函, 癸辛雜志 → 癸辛雜識, 曲有舊聞 → 曲洧舊聞, 金耕讀記 → 金華耕讀記, 農家直說 → 農事直說, 農事集成 → 農家集成, 茅亭客語 → 茅亭客話, 夢漢補筆談 → 補筆談, 文昌雜志 → 文昌雜錄, 本草行義 → 本草衍義, 拾遺本草 → 本草拾遺, 研經堂雜抄 → 研經堂雜誌, 容齋隨筆 → 容齋隨筆, 元司農司才農桑要 → 農桑輯要(元 司農司所撰), 六書精組 → 六書精蘊, 因樹屋書影 → 仁樹屋書影, 博異記 → 博異記, 酒陽雜俎 → 酉陽雜俎, 增補陶朱分書 → 增補陶朱公書, 韓氏有說 → 韓氏直說 등 20종으로 이와 같은 誤記는 필사과정의 誤謬로 추정하였다.

둘째, 인용문헌의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林園十六志의 引用書目 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바로 잡아보면, 顧氏茶譜 → 茶譜, 管子地員 → 管子, 歐陽氏洛陽牧丹記 → 洛陽牧丹記, 金氏甘藷譜 → 甘藷譜, 農桑輯要 → 農桑輯要(元 司農司所撰), 東國文獻備考 → 文獻備考, 東坡志林 → 志林, 馬氏農說 → 農說, 孟祺農桑輯要和 孟氏農桑輯要 → 農桑輯要, 墨客揮犀 → (續)墨客揮犀, 聞龍茶箋 → 茶箋, 伯樂相馬經 → 相馬經, 范氏菊譜 → 菊譜, 徐光啓耕田攷·徐光啓用水疏·徐光啓量算河工及測驗地勢法·徐光啓看泉法·徐光啓看地勢法·徐光啓除蝗疏·徐光啓授時編 → 農政全書, 徐玄扈甘藷蔬 → 甘藷蔬, 薛氏亳州牧丹記와 薛氏亳州牧丹史 → 亳州牧丹史, 歲時廣記集正曆 → 歲時廣記, 詩草木疏 → 毛詩草木蟲魚疏, 沈立海棠記와 沈氏海棠記 → 海棠記, 呂覽審時·呂覽任地·呂覽辨土 → 呂氏春秋, 寧戚相牛經 → 相牛經, 王觀揚州芍藥譜序·揚州芍藥譜序·王氏揚州芍藥譜·王氏揚州芍藥記 → 揚州芍藥譜, 王氏農書·王禎授時圖·馮應京論王氏授時圖 → 農書(王禎), 王安石字說 → 王氏字說, 元司農司農桑輯要 → 農桑輯要(元 司農司所撰), 陸氏天彰牧丹記와 陸氏天彰牧丹譜 → 天彰牧丹譜, 張約齊種花法注 → 種花法, 齊民要術註 → 齊民要術, 趙氏金漳蘭譜 → 金漳蘭譜, 秦氏農書와 秦氏蠶書 → 蠶書, 陳氏農書 → 農書(陳敷), 蜀本艸蒐 → 蜀本草, 稗史類編 → 稗史類, 許氏茶疏 → 茶疏, 黃省曾種芋法 → 種芋法 등 53종으로 引用文獻은 書名 앞에 著者の 姓이나 姓名 또는 편찬을 담당한 官廳名을 冠記하여 同名異書를 구분하였으나, 卷首의 引用書目에서는 書名 뒤의 괄호 안에 저작에 관련한 인물과 관청을 기입하는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따라서 위와 같은 書名의 誤記와 略書名 또는 異書名을 정리하여 본 결과, 농학분야인 6개 志의 인용문헌은 총 357종이며, 이를 志別로 살펴보면, 本立志 105종, 灌畦志 81종, 藝苑志 98종, 晚學志 128종, 展功志 72종, 佃漁志 76종으로 밝혀졌다.

넷째, 6개 志의 인용문헌 357종을 '林園十六志 引用書目'에 수록되어 있는 832종과 비교하여

文獻의 有無를 분석한 결과, '林園十六志 引用書目'과 일치하는 문헌은 총 234종이고, 인용서목에 누락되어 있는 문헌은 총 123종으로, 이것은 곧 인용서목과 일치한 234종의 인용문헌은 원문(1차 자료)의 직접인용이며, 인용서목에 누락된 123종 인용문헌은 원문의 직접인용이 아닌 간접인용을 의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섯째, 농학분야 6개 志의 총 인용회수는 전체 357종의 문헌에서 총 5349회로 밝혀졌다. 여섯째, 各 志別로 인용회수가 비교적 높은 문헌(10회 이상) 핵심문헌을 분석한 결과, 本利志 14종, 灌畦志 18종, 藝苑志 24종, 晚學志 24종, 展功志 17종, 佃漁志 11종 등으로 밝혀졌다.

일곱째, 농학분야에서 인용빈도수가 아주 높은 100회 이상인 핵심문헌은 羣芳譜(667회), 農書(王禎)(299회), 農政全書(296회), 本草綱目(268회), 齊民要術(264회), 增補山林經濟(251회), 蘭湖漁牧志(250회), 杏蒲志(213회), 和漢三才圖會(137회), 亳州牧丹史(107회) 등 10종으로 대부분 백과전서 또는 종합농서의 성격을 갖춘 문헌과 특정분야의 전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0회 이하는 291종으로, 인용회수가 10회 이하인 문헌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회만 인용된 문헌이 165종 46%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문헌의 인용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문헌 종수와 인용 회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인용문헌 357종의 인용회수 5349회 가운데 원문의 직접인용은 234종(66%) 4712회(90%), 간접인용은 123종(34%) 637회(10%)로, 서유구가 農業, 園藝, 畜産 등 農學分野인 6개 志를 편찬할 때, 1차 자료의 직접인용을 통한 편찬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귀영·이춘자. “『임원십육지』의 떡류(餅餌類) 조리가공에 관한 문헌 비교 연구.”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12, No.6(2002), pp.81-92.
- 김귀영·이춘자·박혜원. “『임원십육지』의 곡물 조리가공(밥·죽)에 관한 문헌 비교 연구(I).”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8, No.4(1998), pp.360-378.
- 金榮鎭. 農林水産古文獻備要. 서울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 金用煥·洪錫珠. “林園經濟志의 東·西四宅論에 관한 研究.” 博物館誌, 5호(忠淸專門大學 博物館, 1996,10), pp.5-20.
- 金益桓. 萬姓大同譜. 서울: 新韓書林, 1981.
- 김현숙·이효지. “『임원십육지』 정조지의 조리학적 고찰(I).” 韓國生活科學研究, 第24號(2004), pp.59-82.

- 大邱徐氏都威公派譜編纂委員會編. 大邱徐氏都威公派譜. 1991.
- (影印)大淵閣四庫全書. 第730冊 子部36 農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45冊 子部151 譜錄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51冊 子部157 雜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62冊 子部168 雜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863冊 子部169 雜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1040冊 子部346 小說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1042冊 子部348 小說家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 朴東必. 林園經濟志의 生氣 觀點에서 본 良洞마을 주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市立大學校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2.
- 朴明德. “『林園十六地』의 「瞻用志」中 屋三分法에 대한 小論.” 建築, 제36권, 제4호(대한건축학회, 1992, 8), pp.84-89.
- 박은순. “서유구와 서화감상학과 『林園經濟志』.” 韓國學論集, 제34집(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00), pp.209-239.
- 백숙은·최영진.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수록된 어패류의 향약성(鄉藥性)에 관한 연구.”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14 No.3(2004), pp.187-195.
- 徐眞錫 編. 大邱(達成)徐氏世譜. 서울: 大邱徐氏世譜編纂委, 2003.
- 신민자·최영진. “임원십육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음료의 향약성 효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Vol.8, No.2(1998), pp.502-516.
- 王毓瑚. 中國農學書錄. 東京: 龍溪書舍, 1975.
- 魏校(明)撰., 六書精蘊.
- 유봉학. “徐有渠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奎章閣, 第九輯(1985), pp.24-29.
- 李成美. “『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서유구의 中國繪畫 및 畫論에 대한 關心.” 美術史學研究, 193호(한국미술사학회, 1992), pp.33-57.
- 李盛雨. 韓國食經大全. 서울: 鄉文社, 1981.
- 이양섭·최순복. “홍색소에 의한 염색연구.” 생활문화예술논집, 제16집(建國大學校附設 生活文化研究所, 1993), pp.131-143.
- 李春寧. 韓國農學史. 서울: 民音社, 1989.
- 林園經濟志. 서울: 民俗苑, 1991.
- 張惠鴻. 傳統 褐色 色名과 그 堅牢性 研究. 석사학위논문, 建國大學校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1992.
- 崔純福. 植物에 依한 紅色系 染色 研究. 석사학위논문, 建國大學校 大學院 산업디자인학과, 1992.

- 崔榮辰.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수록된 魚貝類의 일반적 特性과 금기식품에 관한 연구.” 關大
論文集, 29집(關東大學校 自然科學 藝體能學 編, 2001), pp.249-264.
- 韓國姓譜編纂委員會編. 韓國人の 姓譜. 서울 : 三安文化社, 1986.
- 韓國學文獻研究所編. 農書.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1.
- 洪九杓. 朝鮮朝 後期 農學思想과 農書編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清州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90.8.

〈부록 1〉 인용문헌과 인용서목의 비교 및 인용문헌 빈도수

書名	志別	引用書目 有無	本林志	灌畦志	藝苑志	晚學志	展功志	佃漁志	계	誤記 또는 異書名
家塾事親		○				1			1	
嘉祐本草		○		2					2	
家政法		○		1				3	4	
家政治		×						1	1	
嘉話錄		○		1					1	
甘藷譜		○				21			21	金氏甘藷譜
姜氏甘藷譜		×				11			11	
岾茶箋		○				4			4	
開寶本草		○		1	1				2	
開寶本草		×				1			1	
居家必用		×		1	5	8	13	15	42	
祛疑說		○	1						1	
格物總論		○			1				1	
耿橘大興水利申		×	4						4	
鏡裏玉函		○		1			19		20	鏡理玉函
經世文編		○					1		1	
經世民事		○						1	1	
鷓鴣志		○					47		47	
敬齋古今註		○						1	1	
癸辛雜識		○			6	3		4	13	癸辛雜志
戒庵漫筆		○	1		1				2	
古今秘苑		○			2		23		25	
古今醫統		○		2	2	11			15	
高麗圖經		○				1			1	
攷事十二集		○	2						2	攷事新書,攷事新書
攷事撮要		○		1			2		3	
曲洧舊聞		○	2						2	曲有舊聞
課農小抄		×	14					2	16	
郭子章蚕論		×					1		1	
灌園野史		×			1				1	
管子		○	1						1	管子地員
廣羣芳譜		○	1		1	2			4	
廣州記		×				1			1	
廣志		○				2			2	
麗仙神隱書		○	4	8	3	5	2	4	26	
救荒本草		○		7	1				8	
菊譜		○			33				33	范氏菊譜
國憲家猷		○						1	1	
羣芳譜		○	22	32	519	80	14		667	
歸田錄		○				1			1	
橘綠		○				9			9	
衿陽雜錄		○	7						7	
金漳蘭譜		○			39				39	趙氏金漳蘭譜
金華耕讀記		○	9	1	60	4	1	2	77	金耕讀記

金華知非集	○						8	8	
奇器圖說	○	7						7	
箕子外記	○	1						1	
洛陽牧丹記	○			43				43	歐陽氏洛陽牧丹記
洛陽花木記	○			8				8	
暖昧由筆	○				1			1	
蘭湖漁牧志	○						250	250	
南方艸木狀	○		1		3			4	
南葉天鈞說	×						1	1	
南越筆記	○				1			1	
老圃常談	×		1					1	
農家集成	○	10				4		14	農事集成
農事直說	○	30				2		32	農家直說
農桑要旨	○					10		10	
農桑直說	○	1						1	
農桑輯要(孟祺)	○	1	1			1		3	孟祺農桑輯要,孟氏農桑輯要
農桑輯要(司農司)	○	4	19	2	19	5	2	51	農桑輯要,元司農司才農桑要,元司農司農桑輯要
農桑撮要	×	1				2		3	
農書	×	3						3	
農書(王禎)	○	145	53		24	67	10	299	王氏農書,王禎授時圖,馮應京論王氏授時圖
農書(陳敷)	○	22				19	2	43	陳氏農書
農說	○	1						1	馬氏農說
農政全書	○	47	48	19	99	43	40	296	徐光啓耕田攷,徐光啓用水疏,徐光啓量算河工及測驗地勢法,徐光啓看泉法,徐光啓看地勢法,徐光啓除蝗疏,徐光啓授時編
農圃四書	×						1	1	
茶經	○					5		5	
多能鄙事	○		1			2		3	
多能集	○	2						2	
茶譜	○					5		5	顧氏茶譜
茶疏	○					9		9	許氏茶疏
茶箋	×					2		2	
茶箋[明 聞龍]	○					2		2	聞龍茶箋
茶解	○					2		2	
唐本草	○					6	1	7	
大觀茶論	○					4		4	
大理府志	○					1		1	
大學衍義補	○	2						2	
圖經本草	○	1	19	4	15	3	1	43	
屠氏茶箋	○					1		1	
陶氏本草註	○		4	1				5	
陶朱公術	×					1		1	
陶朱公養魚經	×						1	1	
東溪試茶錄	○					1		1	

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桐栢山志	○				1			1	
桐譜	○				16			16	
東本草	○		3					3	
東陽縣志	○					1		1	
東醫寶鑑	○		6		1			7	
東坡雜記	○				3			3	
東坡集	○			1				1	
遜齋閒覽	○				2			2	
馬經	○						79	79	
萬家彙要	○					5		5	
萬寶全書	○						1	1	
名醫別錄	○		2					2	
毛詩艸木蟲魚疏	○					1			詩草木疏
茅亭客話	○			1	4			5	茅亭客話
木棉譜	○					3		3	
夢溪志懷錄	×				2			2	
武經匯解	○						1	1	
務本新書	○	4	20	1	21	47		93	
務本直言	×	1						1	
文字	○				1			1	
文昌雜錄	○				1		1	2	文昌雜誌
文獻備考	○						1	1	東國文獻備考
物類相感志	○		8	7	15	2	2	34	
眉公秘笈	×			1				1	
博聞錄	○		4	2	15	5	22	48	
博物志	○		1		1			2	
博異記	○				1			1	傳異記
朴趾源箕子田記	×	1						1	
磻溪隨錄	○	5			1			6	
伯樂寶金篇	×						1	1	
范成大冬春行序	×	1						1	
汜勝之書	×	20	3		3	4		30	
范氏梅譜	×			1	1			2	
法天生意	○	1						1	
辟寒部	○						1	1	
瓶史	○			1				1	
瓶花譜	○			1				1	
寶金歌	×						1	1	
補筆談	○						1	1	夢漢補筆談
保晚齋集白頭山記	×						1	1	
福壽全書	○						1	1	
本史	○			7	3			10	
本朝世宗大王勸農繪音	×	1						1	
本朝世宗十九年戶曹啓	×	1						1	
本草綱目	○	6	116	21	92	13	20	268	
本草蒙筌	○		1					1	
本草別說	×			1				1	
本草拾遺	○		4	2	1			7	拾遺本草

本草衍義	○	1	6		3		1	11	本草衍義
本草會編	○			2				2	
北苑別錄	○				1			1	
北學議	○	9	1		2	1	4	17	
北戸録	○						2	2	
埤雅	○		2	1	4	1	2	10	
士農必用	○	1				62		63	
事類全書	○		1		1			2	
四民月令	○	10	10	1	7	1		29	
思辨録	○	3						3	
四聲本草	○		1					1	
四時類要	×	2	23	1	11	1	9	47	
四時纂要	×	3	4		12		4	23	
史氏菊譜	×			14				14	史氏越中菊譜
山家清供	○				2			2	
山家清事	○				2			2	
山居録	○	1	39		2			42	
山居四要	○				1	2		3	
山居要術	×				1			1	
山林經濟補	○	3	19	3	28	9	5	67	
山林經濟志	×			1				1	
三澗雜書	○				1			1	
三才圖會	○			4			5	9	
相馬經	○						1	1	伯樂相馬經
湘山録	○		1					1	
尚書考靈囿	×	2						2	
尚書大傳	×	1						1	
尚書緯	○					1		1	
相牛經	○						3	3	寧威相牛經
相雨書	○	1						1	
桑蠶直説	○					1		1	
穉經	×		1		1	1		3	
西溪叢話	○			1				1	
鼠璞	○	11						11	
徐貞明西北水利議	×	2						2	
書蕉	×	1						1	
徐獻忠山鄉水利議	×	2						2	
甘藷蔬	×				34			34	徐玄扈甘藷蔬
石函論	○			1				1	
蟬橘堂手抄	○					1		1	
説文	×		2		1			3	
説文解字	○					1		1	
亳州牧丹史	×			107				107	薛氏亳州牧丹記,薛氏亳州牧丹史
盛京通志	○					1		1	
星湖僊説	○	1				4	3	8	
歲時廣記	○					1		1	歲時廣記集正曆
續墨客揮犀	○				1			1	墨客揮犀

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俗事方	○				6		6	
宋氏雜部	○			5			5	
宋氏種植志	×		1				1	
瑣碎錄	○		1	2			3	
穗經	×		1				1	
水法或問	×	2					2	
授時通考	○	2		1	1		4	
脩荒論	×		1				1	
菽園雜記	○	1					1	
筍譜	○		1				1	
拾遺錄	×		1				1	
食經	○			5			5	
食療本草	○		1			1	2	
沈氏菊譜	×			8			8	
岳陽風土記	○					2	2	
安驥書	○					1	1	
野語	○				2		2	
藥錄	○			1			1	
葯園同春	×		1				1	
楊州事迹	×					1	1	
揚州芍藥譜	○		43				43	王觀揚州芍藥譜序,揚州芍藥譜序,王氏揚州芍藥譜,王氏揚州芍藥記
於于野談	○			1		5	6	
呂光海修水利	×	2					2	
汝南圃史	×		1				1	
呂氏春秋	○	4					4	呂覽審時,呂覽任地,呂覽辨土
廬山記	×		1				1	
呂初泰說	×		1				1	
研經堂雜志	○			1		4	5	研經堂雜抄
研北雜志	○			1			1	
熱河日記	○				1	5	6	
嶺表錄異	○	1					1	
藝花譜	×		1				1	
吳物志	×			1			1	
吳恩吳中水利	×	1					1	
五雜俎	○		1	16	3		22	
烏程懸志	×					1	1	
玉曆通政經	○					1	1	
宛陵詩注	×			1			1	
浣花雜志	○		5				5	
王良百一歌畧相篇	×					1	1	
王氏蘭譜	×			28			28	
王氏字說	○		1		1		2	王安石字說
王右軍帖	×				1		1	
倭葛錄	×					1	1	
容齋隨筆	○		1				1	容齋隨筆
于念東說	×		1				1	

芋譜	○		1					1	
祐山雜說	○	1			1		1	3	
于若瀛說	×			2				2	
雲南志	○				1			1	
園圃日考	×			13				13	
袁黃寶坻勸農書	×	4						4	
月令	×	1						1	
月沙集	×		1					1	
劉氏菊譜	×			29				29	
酉陽雜俎	○		2		6		4	12	酉陽雜俎
俞汝為山鄉水利議注	×	1						1	
柳柳州種樹郭橐駝傳	×				1			1	
游宦紀聞	×			2				2	
六書本義	○		1					1	
六書精蘊	○				1			1	六書精組
天彰牧丹譜	×			32				21	陸氏天彰牧丹記,陸氏天彰牧丹譜
醫學入門	○						1	1	
耳目口心書	○					1		1	
異物志	○				1			1	
李氏花木記	×			1				1	
爾雅	○		2			1		3	
爾雅翼	○	2	3		1	1	4	11	
爾雅正義	×						1	1	
李延年養蘭口訣	×			1				1	
異苑	○				1			1	
人事通	○	2						2	
仁樹屋書影	○						1	1	因樹屋書影
日本種藪方	×				1			1	
日用本草	○		1					1	
日華本草	○		1					1	
林應訓修築河圩文移	×	2						2	
任仁發水利集	×	1						1	
茲山漁譜	○		3					3	
煮泉小品	○				1			1	
蚕經	×					3		3	
蠶桑要旨	×					1		1	
蠶桑直說	×					1		1	
蠶書	○					6		6	秦氏農書,秦氏蠶書
雜五行書	○					1		1	
雜陰陽書	○	5						5	
長樂志	×			1				1	
張敏叔撰	×			1				1	
張五典種棉法	×					3		3	
長春脩用	×			2				2	
傅家寶	○	1						1	
田家五行	○	2						2	
田園必考	×	1						1	

2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井菴經說	×						1	1	
諸器圖說	○	4						4	
齊民要術	○	33	59	1	108	25	38	264	齊民要術註
濟州風土記	×				1			1	
濟州風土錄	×				1			1	
朝野僉載	×						3	3	
種芳譜	×		1					1	
種麥譜	○		12					12	
種書	×		1					1	
種樹書	○	9	2	24	53	4		92	
種蒔直說	○	4						4	
種芋法	○		1					1	黃省曾種芋法
種杏書	○		1					1	
鐘化民說	×					2		2	
種花法	○				2			2	張約齊種花法注
周去非嶺代答	×	1						1	
周氏洛陽菊譜	×			1				1	
周氏洛陽菊譜記	×			26				26	
周氏洛陽花木記	×			1				1	
朱子勸農文	×	3						3	
洞庭陸氏說	×				1			1	
遵生八牋	○			4				4	
遵守冊	×	1						1	
中饋錄	○		2					2	
曾端伯撰	×			1				1	
證類本草	○	1						1	
增補陶朱公書	×	8	16	28	4		2	58	增補陶朱分書
增補四時纂要	×					1		1	
增補山林經濟	○	8	60	25	63	26	69	251	
增補致富奇書	×				1			1	
地利經	○				1			1	
志林	○				2			2	東坡志林
芝峯類說	○		2	1	2		1	6	
晉書	○						1	1	
纂要補	×	1						1	
天工開物	○	30				33		63	
輟耕錄	○					1		1	
菁川養花錄	○			59	9			68	
苕溪詩話	○				1			1	
草木花譜	×			3				3	
草花譜	○			32				32	
蜀本草	○		2	1				3	蜀本草覓
春渚記聞	○						1	1	
春秋運斗樞	×	1						1	
七脩類稿	○		2					2	
快雪堂漫錄	○			2	1			3	
耽羅志	×				4			4	
泰西水法	○	3						3	

太平御覽	○	1						1	
退居篇	×			1				1	
退齋雅閑錄	○			2				2	
破閒集	○				1			1	
八域可居誌	×	1						1	
稗史類	○				2			2	稗史類編
便民圖纂	○		6	3	43	1	10	63	
便民纂要	×				1	1		2	
抱朴子	○			1				1	
捕蝗考	○	3						3	
風土記	○				1			1	
避暑錄話	○				4			4	
河濱定稅疏	×	1						1	
學林新編	○				1			1	
學圃餘疏	○		1	21				22	
韓百謙井田圖說	×	2						2	
漢食貨志	×	2						2	
韓氏詩箋	×	1						1	
韓氏直說	○	2				12	2	16	韓氏有說
閑情錄	○	2	7		1		2	12	
海客日談	○						1	1	
海棠記	×			6				6	沈立海棠記, 沈氏海棠記
海東農書	○	10	10		19			39	
海寧縣志	○					2		2	
蟹譜	○						1	1	
杏蒲志	○	121	39	1	52			213	
好事集	○						1	1	
花鏡	○			5				5	
花譜	×			1				1	
花史	○			3				3	
和漢三才圖會	○	7	19	24	44	16	27	137	
荒政要覽	×	1			1			2	
淮南萬畢術	×				1		1	2	
孝經授神契	×	4						4	
後山叢談	○	1						1	
計		743	749	1404	1132	604	717	5349	